

L'oreal (OR FP)

3Q18 Revenue 실적 발표

유통/화장품

Analyst 양지혜
02. 6098-6667
jihye.yang@meritz.co.kr

L'oreal (OR FP) 3분기 매출 실적 발표 (10/30)

- 2018년 3분기 매출액 6,473백만유로 (+6.2% YoY)를 기록하였으며 환율 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성장률은 3분기 +7.5% YoY를 달성하여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분기 누계 +1.8% YoY (환율효과 제외 +6.8% YoY) 대비 성장률은 소폭 강화되었음
- 지역별로는 Western Europe -0.7%, North America +2.7%, New Market (신흥시장) +17.1% 신장하였음 (환율 효과 제외), 신흥시장 내에서는 특히 Asia Pacific +26.2%의 성장세가 두드러짐
- 카테고리별로는 L'oreal Luxe (럭셔리) +15.6%, Active Cosmetics (더마 화장품 등) +13.1%, Consumer Products (매스 브랜드) +2.3%, Professional Products +1.5% 성장하여 상반기 대비 럭셔리와 더마 화장품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강화됨
- 특히 면세점 채널이 +29.9% YoY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또한 +38.3% YoY 증가함. 온라인 채널 비중은 전체 매출의 9.7%임
- 컨퍼런스콜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호실적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1) 럭셔리 호실적의 이유와 2) 아시아 수요 둔화 여부 및 새로운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파이구 영향 3) 세부 브랜드별 성과 등에 대한 질문 집중
- 이에 대해 1) 럭셔리 브랜드들은 전세계적으로 고르게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 아시아 성장률이 가장 두드러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신규 아이템들의 성과가 좋았다고 밝힘. 2) 중국 매크로 환경에 대해 많이 우려하지만 중국 내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시그널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음. 파이구 관련해서는 브랜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며 로레알 브랜드들은 중국 내 채널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함. 3) 브랜드별로는 La Roche Posay와 Cerave 등 더마코스메틱의 성장이 두드러짐. 랑콤, 알마니 등 럭셔리 Big 브랜드들의 성과가 잇코스메틱스와 같은 Small 브랜드들의 성과보다 좋았으며 잇코스메틱스가 올해는 미들싱글 성장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음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5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8년 11월 5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1월 5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양지혜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